**왕하1505 Note**

**Cross check 대하2616-20**

대하2616. 그러나 그가 강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의 무너짐에로 위로 드높여지니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러 범죄하여, 분향 제단 위에서 분향하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음이라,

대하2617. 이에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자들인 여호와의 제사장들 팔십이 그와 함께 저를 좇아 들어가니라,

대하2618. 그리고 그들이 웃시야 왕에 맞서서[아마드:서다,일어나다,계속하다,거주하다,확립하다,두다,나타나다,일으키다,남다,(확고히,옆에,잠잠히)서다,머무르다,체재하다], 저에게 말하니라,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당신께 속하지 않고, 분향을 위해 성별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속하나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는 당신이 범법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명예를 위하게 되지도 않음이라,

대하2619. 그때에 웃시야가 노하고, 저의 손 안에 분향하기 위한 향로[미크테레트:연기내는(향피우는) 어떤 것,즉 숯 번철,향로(香爐)]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리고 저가 제사장들에게 노하고 있던 동안에, 나병이 여호와 집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분향제단 곁에서 그의 이마에 바로 솟아나니라,

대하2620. 그리고 머리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저를 바라보니라, 그라고 보라, 저가 저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저를 거기로부터 밖으로 밀어내니라[바할:떨다,맥이 뛰다,(갑자기)깜짝 놀라다(놀라게 하다),동요하다,동요하게 하다,합의적으로 염려하여 서두르게 하다,당황하다,당황하게 하다,서두르다,급하게 하다(급하게),밀어내다,괴롭히다,갑자기], 뿐만 아니라, 저 자신 또한 나가려고 서둘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를 치셨음이라,